

2023년 2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글말특강 (3회차)

| | | | |
|-------|--|------|--------------------|
| 교강사 | 오정근 | 강의제목 |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 |
| 학부(과) | 경영정보학부 | 학 번 | 20212616 |
| 이 름 | 김민진 | | |
| 감상문 | <p>7주 동안 들었던 자신있게 말하기 강의를 요약한 특강이었다. 자신있게 말하기를 수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친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사람을 잘 사귀고 싶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재밌는 친구를 부러워했고 그 친구들처럼 되고 싶었다. 꿈틀리인생학교에서 사용할 별명을 지을 때, 두루두루 친구를 잘 사귀고 싶다고 '두루'라는 별명을 내게 스스로 지어주기도 할 만큼 정말 그에 대한 욕구가 컸다. 그러나 성공한 적은 없었다. 그 때 친구들과 잘 지냈어도 내가 정말 믿고 가까워진 친구는 1명에 불과했다.</p> <p>이 특강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말하기를 배우며 나는 마음을 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통하는 말하기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나의 과거를 돌아봤고, 나는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공감하는 방법(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기), 말수가 없어도 호감 얻는 법(눈맞춤, 맞장구) 등을 꽤나 실천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들었던 이유는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이었구나 싶었다. 공감이나 칭찬을 들어도 "애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첫만남에서는 재밌게 농담도 주고 받았지만 항상 그 이후의 만남에서 진전이 없어 어색해지는 것 등 이런 일들이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을 먼저 주진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p> <p>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먼저 주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가 나의 마음을 거절할까 무서웠기 때문이다. 나는 선물을 준비할 때 상대가 싫어할까 걱정부터 하곤 한다. 올해 아버지 생신 때도, 주문제작 케이크와 서프라이즈를 위한 장식들을 전부 준비해놓고 했던 말이 '아 근데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할 거 같아...'였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실망하기 싫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 버릇을 고쳐야 대인관계에서의 고민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 꿈을 찾고 나아가고 쟁취하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자기암시문으로 정했던 '떨지말고 설레자'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다. 강의를 듣고 나를 되돌아 보니,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걸 몸소 느꼈다.</p> <p>설득에 관해서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는 내용과 오해에 관해서 말할 때 표현에 신경쓰자라는 내용이 인상깊었다. 나는 설득할 때, 좋은 점을 나열하곤 했는데 앞으로 설득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이를 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들을 짚어보려 한다. 그리고 나는 예스맨으로 설득 당하는 일이 많았던 거 같기도 하고, 이번에 동아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구성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었다. 결국 내가 양보해서 넘어가게 됐는데 마음 한 칸에 아쉬움이 남았다. 아직 공연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감정을 건들이는 표현들을 잘 사용해서 팀원들과 멋진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 말하기에 대한 특강이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기는 항상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기> 강의와 이 특강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것 강의인 것 같다.</p> | | |

[기타의견]